농협사료, '시장점유율 20% 달성' 목표 결집

전국 영업 책임자 집결 전략회의 개최…판매 확대 위한 총력

지난 20일 농협사료(대표이사 최강필)가 올해 시장점유율(MS) 20%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영업 역량 결집에 나섰다.

농협사료는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마케팅 전무를 비롯해 마케팅본부, 중소가축분사, 전국 각 지사의 영업부장 및 영업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영업 전략 세부 수립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목표인 MS 2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판매 확대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본사-지사 간 협력 강화 등의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번 전략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가축 사료 분야에서는 대군농가와 TMR 공장을 집중 판촉 대상으로 선정했다. 데이터 영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All Care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축산물도매분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이용농가의 출하 우대 혜택을 강화한다.

양돈 및 양계 등 중소가축 사료 부문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 방안도 논의되었다. 농협사료는 중소가축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여금 지원 제도'를 적극 운용하는 한편, 각 농장의 상황을 고려한 '농장 맞춤형 사료' 개발 및 공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경제형 사료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전형욱 마케팅 전무는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며, "본사와 지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축산농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점유율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시장점유율 확대 및 영업 전략세부 수립 회의 개최(농협사료 제공)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체계적 환경경영의 출발점…ESG경영 본격 실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26.1.19.(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환경경영 국제표준인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ISO 14001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의 엄격한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없이 환경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위생방역본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환경경영 방침 수립 ▲환경영향 식별 및 관리 ▲환경목표·세부추진계획 운영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 ISO 14001 전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체계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ISO 14001 인증 획득은 위생방역본부가 추진 중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 전략의 핵심적 성과로, 환경(E) 분야의 관리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생방역본부는 향후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예방, 자원 효율화 등 실질적인 환경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낙농농가, 초유 협약 체결

보은옥천영동산업협동조합(조합장 구희선)은 1월 27일(화) 낙농농가와 함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유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은군 강희동, 이형석, 최상율, 영동군 김주섭 낙농 농가가 참석해 체계적인 초유 공급과 활용을 통한 송아지 및 새끼염소의 건강증진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뜻을 모았다.

초유는 송아지와 새끼 염소가 태어난 직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원으로, 면역 형성과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기 초유 섭취 여부는 가축의 폐사율 감소와 성장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초유를 필요로 하는 축산 농가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초유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질 좋고 원활한 초유 생산을 위해 초유공급낙농 농가를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축산기자재를 지원하였다.

구희선 조합장은 "초유 공급은 가축 폐사율을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사업실적으로 낙농농가부터 총 700ℓ의 초유를 공급 받아 약 248농가에 602ℓ를 지원했으며,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서 ASF 발생…도, ASF 추가 확산 차단 총력

축산농가와 도민 ASF 차단 방역 협조 강조

23일(안성)과 24일(포천) 연이어 양돈농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이후 방역자원을 총동원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대 내 정밀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추적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나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기존 양상과 달리, 바이러스 검출 이력이 없던 안성지역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SF는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으로, 단 한 번의 방역 소홀도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관리 강화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 즉시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손·장화 소독을 의무화해야 하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 강화

사료·출하·분뇨·컨설팅 차량 등 모든 출입 차량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하고, 농장 진입 전·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농장 내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지정 구역 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전실 운영 및 농장 출입 관리

농장 출입 시 전실을 통한 작업복·장화 교체와 손 소독을 필수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농장 내·외부 구역을 구분 관리해 교차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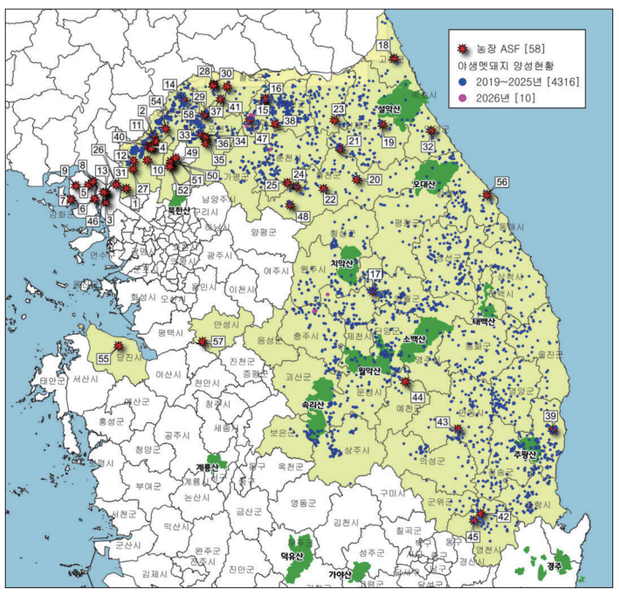
야생동물 차단 및 쥐 방제 철저

울타리·차단망 점검 등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시설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야생동물 은신처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심 증상 즉시 신고

돼지 폐사, 식욕 부진, 고열 등 ASF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또는 은폐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소독·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ASF 전국 발생 지도(경기도청 제공)

설 앞두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총력…미생물 검사 강화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평시 대비 30~40% 확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는 설 성수기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해 도내 도축장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4주간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축산물 안전 관리 계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소는 기간 내 도내 주요 도축장 6곳을 대상으로 식육 내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소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는 평시 월 1,670건에서 2,170건으로 약 30% 확대했으며, 소·돼지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또한 평시 월 480건에서 672건으로 40% 늘려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 내 위생 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도축장뿐만 아니라 부산물처리업체 등 현장을 출입하는 업체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병행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